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 및 인용문헌 분석을 통한 연구동향 연구*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by analyzing Journal articles and the Cited Literatures

오 세 훈(Se-Hoon Oh) **

초 록

본 연구는 광복이후 최근 60년간 발표된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의 주제 및 간행시기별 분포를 조사하고, 이곳에 인용된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주제 및 인용시기별 분포와 그 반감기를 조사함과 동시에 타 학문 분야와의 관련성을 추적함으로써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의 동향 및 문헌정보학과 타 학문 분야와의 연계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의 핵심 주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된 연구 주제가 출현하고 쇠퇴하며, 논문의 주제와 간행시기 사이에 상관성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둘째, 피인용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주제는 인용시기 간에 상관성이 존재하며, 반감기는 평균 10년 미만이지만 주제에 따라 그 반감기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셋째, 피인용 타 학문 분야 문헌의 주제는 인용시기 사이에 상관성이 있으며, 반감기는 평균 10년 미만이지만 주제에 따라 그 반감기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search trend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by means of the subject analysis of the Korean journal articles published during the last sixty years and by means of the citation analysis of the literatures cited in the journal artic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ubjects of the journal articles are difference from the articles by publication period. The core subjects of the research have been changed over the years.

Second, the subject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teratures in foreign languages cited in the journal articles are difference from the literatures by citation period and by literature age.

Third, the subjects of other disciplinary literatures in foreign languages cited in the journal articles is difference from the literatures by citation period and by literature age.

Fourth, although the half-life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teratures cited in the journal articles is difference from the literatures by subject, the half-life of the literatures of this discipline is 10-year.

키워드: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인용분석, 연구전선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trends, citation analysis, research front

* 본 연구는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요약한 것임.

** 광운대학교 도서관 사서(atom@kw.ac.kr)

■ 논문접수일자 : 2005년 8월 19일

■ 게재확정일자 : 2005년 8월 15일

1.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 문헌정보학 교육이 이루어진지 반세기가 지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헌정보학 교육기관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이 분야의 고급 인력이 다수 배출되고 있다. 1970년에 한국도서관학회의 창립을 출발점으로 하여 현재는 6개의 전국 규모의 학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문헌정보학은 정규교육과 전문가 및 연구자의 배출, 전문 학회의 설립 운영 및 학술지의 간행 등 학문의 요건을 이미 갖춘 채 크게 발전해 왔다.

광복이후 최근까지 수행된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은 사회변천과 함께 많은 연구결과들을 생산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누적될 것이다. 지금까지 누적되어온 연구결과에 대한 추적은 학문의 발전 양상과 연구동향 및 학문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알려져 왔고, 이와 같은 연구동향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광복 이후 현재를 아우르는 60년간에 걸친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의 동향을 이 분야의 발전 과정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한 연구는 시도된 바 없으며, 특히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과 여기에 인용된 문헌을 조사, 분석하여 이 분야의 발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조명한 연구는 수행된 바 없다.

본 연구는 광복이후 최근 60년간 발표된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을 대상으로 문헌정보학 연구의 동향, 여기에 인용된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주제 및 인용시기별 분포와 이들 문헌의 반감

기를 밝히고 아울러 타 학문과의 관련성을 추적함으로써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의 동향 및 문헌정보학과 타 학문과의 연계성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의 주제 및 간행시기별 분포를 조사, 분석하여 그 연구동향을 밝힌다.

둘째,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에 인용된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주제 및 인용시기별 분포를 조사, 분석하여 그 관련성을 밝힌다.

셋째,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에 인용된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주제 및 연령별 분포를 조사, 분석하여 그 관련성을 밝힌다.

넷째,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논문에 인용된 타 학문 분야 문헌의 주제 및 인용시기별 분포를 조사, 분석하여 그 관련성을 밝힌다.

다섯째,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논문에 인용된 타 학문 분야 문헌의 주제 및 연령별 분포를 조사, 분석하여 그 관련성을 밝힌다.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의 주요 가설은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의 주제와 피인용 문헌의 주제는 간행시기, 인용시기 및 문헌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며, 그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I.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의 주제는 간행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에 인용된 문헌의 주제는 인용시기 및 문헌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1.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에 인용된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주제는 인용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2.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에 인용된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주제는 문헌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3.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에 인용된 타 학문 분야 문헌의 주제는 인용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4.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에 인용된 타 학문 분야 문헌의 주제는 문헌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가 추적한 조사 대상 기간은 1946년부터 2004년까지이고, 조사 대상 학술지는 학술지 발행 이전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1946년부터 1969년까지는 「도서관」, 「국회도서관보」, 「도협월보」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고, 1970년부터 2004년까지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본 연구의 조사 대상 논문 수는 2,571편이고, 이곳에 인용된 문헌 중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은 20,129편이며, 타 학문 분야 문헌은 10,289편이다.

2. 문헌정보학의 주제 영역 설정

본 연구의 조사 대상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과 이곳에 인용된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주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헌정보학의 주제 영역과 그 영역을 구성하는 세부 주제 및 하위 주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국제기구 및 국내외 연구자들이 제시한 문헌정보학의 주제 영역을 조사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여 문헌정보학의 주제를 류(類) 개념의 주제 영역과 목(目) 개념의 하위 주제 및 세목(細目) 개념의 세부 주제들을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가공 및 재설정하여 <표 1>과 같이 작성하였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제기구와 국내외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영역을 참고로 문헌정보학의 주류를 기록관리학, 도서관 건물 및 설비, 도서관운영, 도서관 체제, 문헌정보학 기초, 서지학, 자료조직, 정보학, 참고정보봉사, 출판 등 10개의 주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 가운데 기록관리학은 선행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기초 영역을 구성하는 하위 주제로 설정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록관리협회' 및 '기록관리학회'가 설립되고 이곳에서 발행하는 「기록관리학회지」는 이 분야 전문 학회지로 성장하고 있는 등의 점들을 고려하여 10개의 영역에 포함시켰다.

각각의 영역을 구성하는 총 56개의 하위 주제를 해당 영역에 배치하였고, 하위 주제를 구성하는 108개의 세부 주제를 배치하였다.

〈표 1〉 문헌정보학 문헌의 주제 분석 도구

영역	하위 주제	세부 주제	영역	하위 주제	세부 주제	영역	하위 주제	세부 주제
기록관리학	도서관 건물 및 설비	도서관 건축 비품 설비/장치	문헌정보학 기초(계속)	법령/기준 도서관 기준 도서관법 저작권법	연구	정보학(계속)	이용 연구	이용연구 일반 이용자 인식/요구 정보이용행태
자료의 유형(계속)	전문가시스템 전문가시스템 일반 전문가시스템 평가 지식관리시스템 참고전문가시스템	정보검색	검색 기법/전략 검색시스템 검색어 검색엔진 시스템/검색 효율성 평가 정보검색 일반					
				전자저널 정부간행물 학위논문 연속간행물 웹 자원 자료유형 일반	전문성	교육 사서직 윤리/검열/지적자유 전문단체 전문성 일반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인터페이스 정보기술 일반 정보기술(계속) 정보보안 컴퓨터 언어 패턴/문자 인식 하드웨어
장서개발/관리	서지학	각종 서지 서지학 일반 체계서지학(목록학) 형태서지학(관본학)	정보유통 정보이론 정보축적					
				보존/제본/수리 서고관리 수서/등록/교환/납본 자료의 유형별 관리 장서개발/정책 장서관리 일반 장서점검 장서평가 폐기	자료조직	분류 고서분류 도서기호 분류법 분류일반 인터넷자원 분류	참고정보봉사	독서 교육/지도/치료 봉사의 효율성 평가 열람/대출 봉사 이용자 교육 전자정보서비스 정보봉사 일반 정보주지서비스(SDI) 참고봉사 일반 초록/색인/번역 봉사 특수/장애인 봉사
장서관리	편목	MARC 고서편목 목록규칙 비도서자료 조직 온라인 열람용 목록 (OPAC) 웹 자원조직(메타데이터) 전자통제 편목일반	출판					
				홍보/마케팅	정보학	계량정보학 계량정보학 일반 인용분석/인용색인 학술커뮤니케이션		
도서관체제	도서관 및 정보정책 도서관 사정/실태조사 도서관 사정 일반 도서관 통계/연감 실태 조사 도서관 유형 공공도서관 국가도서관 대학도서관 도서관 유형 일반 어린이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학교도서관 도서관 협동/자원공유	도서관 역사 도서관과 사회	도서관자대화 업무별 자동화 자동분류 자동색인/초록 자동화 일반 자동화효율성 평가 디지털도서관					
				조직관리	의사결정 조직 일반 조직 커뮤니케이션 직무만족			
재정관리	의사결정 조직 일반 조직 커뮤니케이션 직무만족							

3.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의 분석

3.1 주제 영역 및 간행시기별 분포

3.1.1 조사 대상 문헌의 주제 영역별 분포

본 연구의 조사 대상 문헌을 주제 영역과 5년 간격의 간행시기별로 구분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에 따르면,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은 주제 영역별로 비중의 차이가 있지만 문헌정보학의 모든 영역을 다루었으며, 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은 영역은 정보학이다.

연구자들이 주목한 주제 영역을 백분율의 순위에 따라 열거하면 정보학(24.9%), 자료조직(17.3%), 문헌정보학 기초(16.6%), 도서관운영(14.8%), 도서관체제(12.8%), 참고정보봉사(11.2%), 기록관리학(1.1%), 출판(1.0%), 도서관 건물 및 설비(0.4%)이다. 즉,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의 3/4 정도(73.6%)가 정보학,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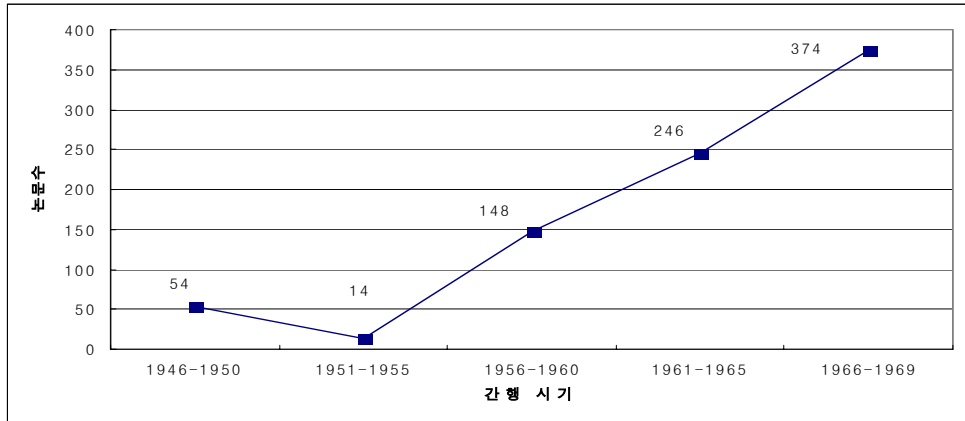
료조직, 문헌정보학 기초, 도서관운영 등 4개 주제 영역의 논문이라는 점에서 광복 이후 60년간의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은 전술한 4개 주제 영역을 중심으로 연구가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3.1.2 간행시기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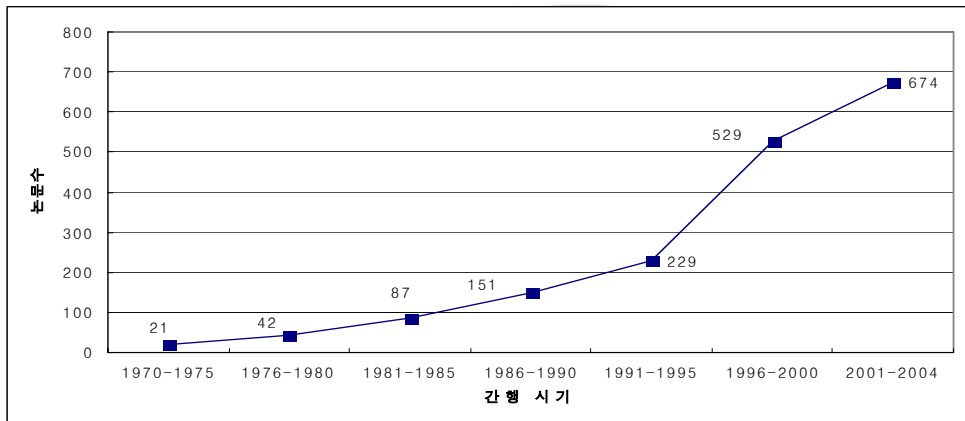
<표 2>에 따르면, 본 연구의 조사 대상 기간 중에 발표된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은 2001-2004년 기간에 26.2%로 최근에 근접할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14년간(1991-2004년)의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논문 생산성(55.7%)은 과거 45년간의 생산성(44.3%)을 능가하는 연구동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10년 내지 15년간의 과학문헌의 생산성은 과거의 그것을 능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Price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Price 1963). 이것은 1980년대 전국의 대학에 문헌정보학과가 크게 증설되고 이에 따라 교수 및 연구 인력이 급증한 것이 그 원인으로 판단된다.

<표 2> 조사 대상 문헌의 주제 영역 및 간행시기별 분포

주제영역 \ 간행시기	1946	1951	1956	1961	1966	1971	1976	1981	1986	1991	1996	2001	계 (편)	%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4		
문헌정보학 기초	18	6	33	68	60	5	10	18	27	26	81	74	426	16.6
도서관 체제	13	1	36	76	101	3	3	6	12	11	29	37	328	12.8
도서관 건물 및 설비	-	-	2	2	3	-	-	1	-	-	-	2	10	0.4
도서관운영	3	4	12	31	66	4	6	9	20	33	80	113	381	14.8
참고정보봉사	11	1	21	12	38	2	8	12	12	28	53	90	288	11.2
자료조직	3	2	44	52	83	2	9	12	20	41	77	101	446	17.3
정보학	1	-	-	3	17	-	6	28	59	89	199	237	639	24.9
출판	5	-	-	2	10	1	-	1	1	-	2	3	25	1.0
기록관리학	-	-	-	-	2	-	-	-	-	1	8	17	28	1.1
계(편)	54	14	148	246	380	17	42	87	151	229	529	674	2,571	-
%	2.1	0.5	5.8	9.6	14.8	0.7	1.6	3.4	5.9	8.9	20.6	26.2	-	100.0



〈그림 1〉 조사 대상 문헌의 학회지 출현 이전의 간행시기별 분포



〈그림 2〉 조사 대상 문헌의 학회지 출현 이후의 간행시기별 분포

〈표 2〉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조사 대상 기간 동안의 간행시기별 논문 생산성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그림 1〉과 〈그림 2〉를 작성하였다. 전자는 학회지 출현 이전의 간행시기별 분포이고, 후자는 학회지 출현 이후의 그것이다.

〈그림 1〉에 의하면 1951년 이후에 발표된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의 생산성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계속 증가하였다. 다만, 1951-1955년 기

간의 생산성은 1946-1950년 기간에 비하여 큰 폭으로 하락하였는데, 이 기간은 6.25 동란의 와중으로 외부 요인에 의해 기관지의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림 2〉에 의하면 학회지 출현 이후 논문의 생산성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계속 증가하였다. 특히 1995년 이후 논문의 생산성이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학회지의 간행 빈도가 반년

간에서 계간으로 상향되고, 연구 인력이 점차 증가하였고, 전국 대학 및 학회지의 평가 계획이 공표된 것 등이 그 원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 문헌의 논문 생산성은 학회지 출현 직전의 논문 생산성(14.8%)을 능가하는데 30년 정도가 소요되었다. 이것은 학회지 출현 이전의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는 도서관계와 문헌정보학계를 망라한 연구 활동이었으나 학회지 출현 이후에는 도서관계의 참여가 부진한 채 문헌정보학계를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1.3 주제 영역 및 간행시기별 분포

〈표 2〉에 의하면 본 연구의 조사 대상 기간 중에 발표된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은 주제 영역 및 간행시기별로 비중의 차이는 있으나 5개 주제 영역(도서관체제, 도서관운영, 문헌정보학 기초, 자료조직, 참고정보봉사)의 논문은 시기를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발표되었고, 정보학 분야 논문은 「정보관리학회지」가 창간된 1984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그리고 계속 증가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 기간 중에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가장 주목한 정보학 분야는 1980년대를 기점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여 1990년대부터 크게 주목을 끌었다. 최근 14년간(1991-2004년) 발표된 우리나라 정보학 분야 논문 5편 중 4편 이상(82.2%, 525편)이 이 기간에 발표되었다는 점과, 최근 9년간(1996-2004년) 발표된 이 분야의 논문은 정보학 논문 전체의 68.2%를 차지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이러한 현상은 이 시기가 우리나라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전산기술의 도입 및 활용이 활발해짐으로써 정보학 분야의 관심이 급증한 것이 그 원

인이라고 판단된다.

최근 9년간 우리나라 정보학 분야 연구자들의 논문 생산성은 과거 50년간의 생산성을 능가하는 연구동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술한 Price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3.1.4 영역별 하위 주제 및 간행시기별 분포

본 연구의 조사 대상 기간 중에 발표된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을 영역별 하위 주제 및 5년 간격의 간행시기별로 구분하여 〈부록 1〉을 작성하였다(오세훈 2005, 121-128). 이 가운데 본 연구의 조사 대상 문헌의 3/4 정도(73.6%)를 차지하는 상위 4개 주제 영역에 해당되는 문헌의 하위 주제 및 간행시기별 분포를 영역별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보학 영역

본 연구의 조사 대상 기간에 발표된 정보학 분야 문헌의 주제는 정보학 분야를 구성하는 13개 하위 주제 가운데 5개 주제(정보검색 3.7%, 이용연구 3.4%, 도서관자동화 2.8%, 인터넷 2.8%, 정보축적 2.3%)에 집중되었다. 즉, 정보학 분야 문헌 전체(24.9%)를 100으로 환산할 경우, 본 연구의 조사 대상 기간 중에 발표된 우리나라 정보학 분야 논문 전체의 60.2%는 전기한 5개 주제의 논문이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 기간에 발표된 논문 가운데 정보학 분야 논문은 1976년 이후부터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지속적으로 발표되었으며 특히, 최근 14년간에 집중적으로 발표되었다. 즉, 조사 대상 기간에 발표된 정보학 분야 논문 5편 중 4편 이상은 최근 14년간에 발표된 것이다. 따라서 정보학 분야는 과거

에 비하여 최근에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각광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자료조직 영역

본 연구의 조사 대상 기간에 발표된 논문 가운데 자료조직 분야 논문의 주제를 백분율의 순위에 따라 열거하면 분류(7.1%), 편목(6.9%), 주제분석(2.0%), 서지통정(0.7%), 자료조직 일반(0.5%)이다.

자료조직 분야 논문 전체(17.3%)를 100으로 환산할 경우, 80.9%는 분류와 편목을 다룬 문헌이다. 즉, 본 연구의 조사 대상 문헌 중 자료조직 분야 논문의 핵심 주제는 분류와 편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 문헌 가운데 분류를 다룬 논문은 시기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발표되었고, 편목을 다룬 논문은 1946-1955년 및 1971-1975년을 제외한 기간에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자료조직에 관심을 가진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문헌 분류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 반면에 편목에는 제한적인 관심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3) 문헌정보학 영역

본 연구의 조사 대상 기간에 발표된 논문 가운데 문헌정보학 기초 분야 논문의 주제를 백분율의 순위에 따라 열거하면 전문성(6.7%), 법령/기준(3.0%), 이론 및 철학(2.7%), 도서관 역사(2.3%), 연구(1.1%) 등이다.

문헌정보학 기초 분야 전체 논문(16.6%)을 100으로 환산할 경우, 전문성, 법령/기준, 이론 및 철학을 다룬 논문(12.4%)은 이 분야 전체 논문의 74.7%를 차지한다. 이것은 문헌정보학 기초 분야 논문 10편 중 7편 이상은 전기한 3개의

주제를 다룬 논문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 문헌 가운데 문헌정보학 기초 분야 논문은 1961-1970년 및 1996-2004년 기간에 집중적으로 발표되었다. 이러한 연구동향은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전기한 기간에 집중적으로 문헌정보학의 기초를 확립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4) 도서관운영 영역

본 연구의 조사 대상 기간에 발표된 논문 가운데 도서관운영 분야 논문의 주제는 장서개발/관리(4.6%), 경영관리(2.3%), 조직관리(2.1%), 자료의 유형(1.9%), 도서관 기획/활성화(1.7%), 도서관 평가(1.2%) 등의 순위이다.

도서관운영 분야 논문 전체(14.8%)를 100으로 환산할 경우, 도서관운영을 구성하는 9개의 하위 주제 가운데 상위 3개 주제를 다룬 논문(9.0%)은 도서관운영 분야 논문 전체의 60.8%를 차지한다. 즉, 도서관운영 분야 논문 5편 중 3편 이상은 전기한 3개 주제(장서개발/관리, 경영관리, 조직관리)에 대한 논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 기간에 발표된 논문 가운데 도서관운영 분야 논문은 지속적으로 발표되었으며 특히, 1961-1970년(25.5%) 및 1991-2004년(59.3%) 기간에 집중적으로 발표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도서관운영 분야 전체 논문 중 절반 이상은 최근 14년간에 발표된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운영 분야는 과거에 비하여 최근에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각광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2 가설 1의 검증

3.2.1 독립성 검증

가설 I을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성 검증을 한 결과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조사 대상 문헌의 주제 영역 및 간행시기의 독립성 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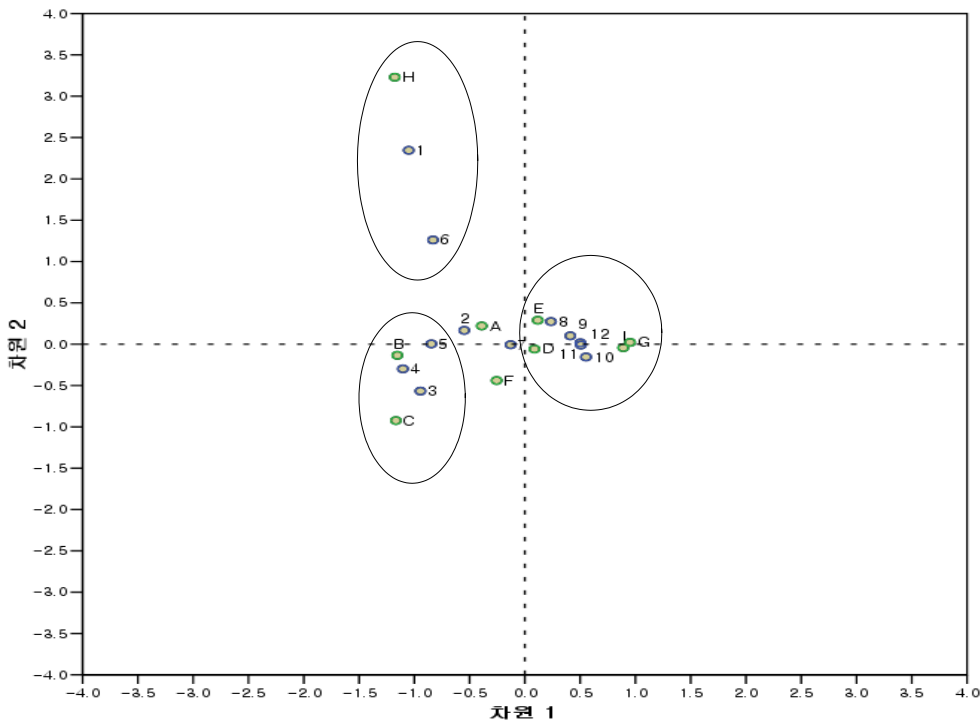
독립성 검증	χ^2	자유도(df)	p값
	705.906	88	3.478e-97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성을 검증한 결과 χ^2 값이 705.906이고 p값이 0.000보다 작으므로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확

인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의 주제 영역과 간행시기 간에 상관성이 존재함을 입증하였다.

3.2.2 대응 분석

조사 대상 논문의 독립성 검증 결과, 주제 영역과 간행시기 간에 상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제 영역과 간행시기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변량 분석기법인 대응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 <그림 3>이다.



<그림 3> 조사 대상 문헌의 주제 영역 및 간행시기의 대응분석 결과

- 범례 A: 문헌정보학 기초, B: 도서관체제, C: 도서관 건물 및 설비, D: 도서관운영, E: 참고정보봉사, F: 자료조직, G: 정보학, H: 출판, I: 기록관리학.
 1: 1946-1950년, 2: 1951-1955년, 3: 1956-1960년, 4: 1961-1965년, 5: 1966-1970년, 6: 1971-1975년, 7: 1976-1980년, 8: 1981-1985년, 9: 1986-1990년, 10: 1991-1995년, 11: 1996-2000년, 12: 2001-2004년.

〈그림 3〉에 의하면 차원 1축을 기준으로 음수 쪽을 살펴보면 조사 대상 문헌의 간행시기 1946-1950년, 1956-1960년, 1961-1965년, 1966-1970년, 1971-1975년과 주제 영역 도서관 체제, 도서관 건물 및 설비, 출판이 군집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양수 쪽은 간행시기 1981-1985년, 1986-1990년, 1991-1995년, 1996-2000년, 2001-2004년과 영역 정보학과 기록관리학이 군집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 대상 기간에 발표된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은 1946-1975년 기간 동안에는 도서관체제, 도서관 건물 및 설비, 출판 영역의 문헌이 당시에 매우 활발하게 발표되었으나 그 이후 기간에는 점차 쇠퇴하고 있는 반면, 정보학과 기록관리학은 1981-2004년까지 문헌정보학의 주제 영역으로 꾸준히 연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술한 내용으로 우리나라 문헌정보학의 주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된 연구주제가 출현하고, 또한 쇠퇴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앞에서 밝힌 내용에 의하여 본 연구의 가설 I 은 검증되었다.

3.2.3 검증 결과

본 연구의 조사 대상 문헌 총 2,571편을 주제 및 간행시기별로 분석하고, 이를 통계 처리한 결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의 동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논문 생산성은 과거 50년간의 논문 생산성을 능가하였다. 이것은 Price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2)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논문 생산성은 학회지 출현 직전의 논문 생산성(14.8%)

을 능가하는데 30년 정도가 소요되었다. 학회지 출현 이전의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는 도서관계와 문헌정보학계를 망라한 연구 활동이었으나 학회지 출현 이후에는 도서관계의 참여가 부진한 채 문헌정보학계를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3) 학회지 출현 이전에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은 다른 주제 영역에 비하여 도서관체제의 연구에 비중을 두었고, 학회지 출현 이후에는 정보학을 비롯한 5개 주제 영역(도서관운영, 자료조직, 문헌정보학 기초, 참고정보봉사)의 연구에 치중하였다. 대응분석 결과 도서관체제는 학회지 출현 이전에, 정보학은 학회지 출현 이후에 각각 주목을 받은 영역임이 검증되었다.

(4) 우리나라에서 최근 10년간 급성장한 문헌정보학의 5개 주제 영역은 정보학, 도서관운영, 참고정보봉사, 자료조직, 문헌정보학 기초의 순위이다.

(5) 학회지 출현 이후에 발표된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계의 연구 결과는 학회지 출현 이전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비하여 주제의 다양성이 높다. 이것은 학회지라는 정보전달매체의 출현은 연구자들에게 연구 동기를 부여하고 연구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4. 우리나라 문헌정보학의 피인용 문헌 분석

4.1 피인용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 분석

4.1.1 주제 영역 및 인용시기별 분포

본 연구의 가설 II-1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 문헌에 인용된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 20,129편을 5년 간격의 인용시기별로 각각 구분하여 주제 영역별 분포, 인용시기별 분포, 주제 및 인용시기별 분포를 조사, 분석하였다.

(1) 주제 영역별 분포

본 연구의 조사 대상 문헌에 인용된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을 주제 영역 및 5년 간격의 간행시기별로 구분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부록 2>를 작성하였다(오세훈 2005, 129-136).

<표 4>에 나타난 인용된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주제 영역을 인용률의 순위에 따라 열거하면 정보학(33.7%), 자료조직(17.0%), 도서관운영(14.8%), 문헌정보학 기초(13.7%), 참고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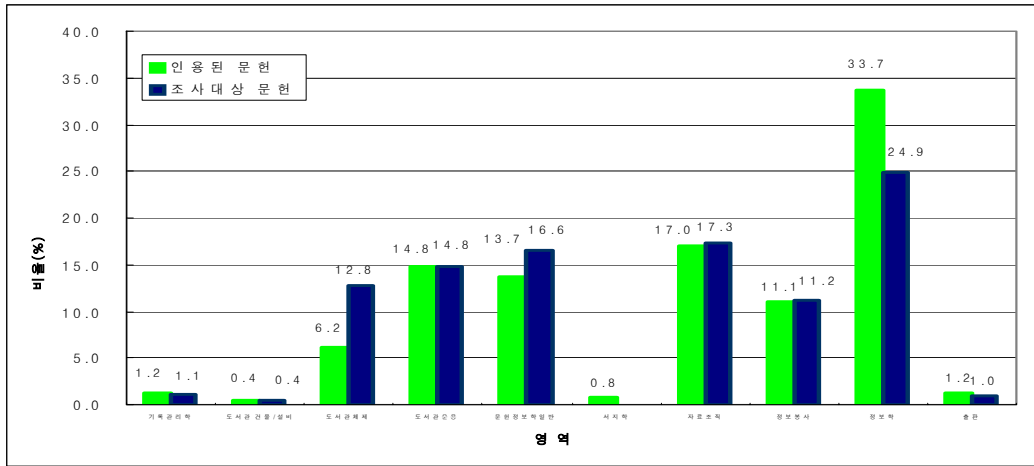
사(11.1%), 도서관 체제(6.2%) 기록관리학과 출판이 각각 1.2%, 서지학(0.8%), 도서관 건물 및 설비(0.4%)이다.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과 이곳에 인용된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주제 영역별 분포를 비교하기 위하여 <그림 4>를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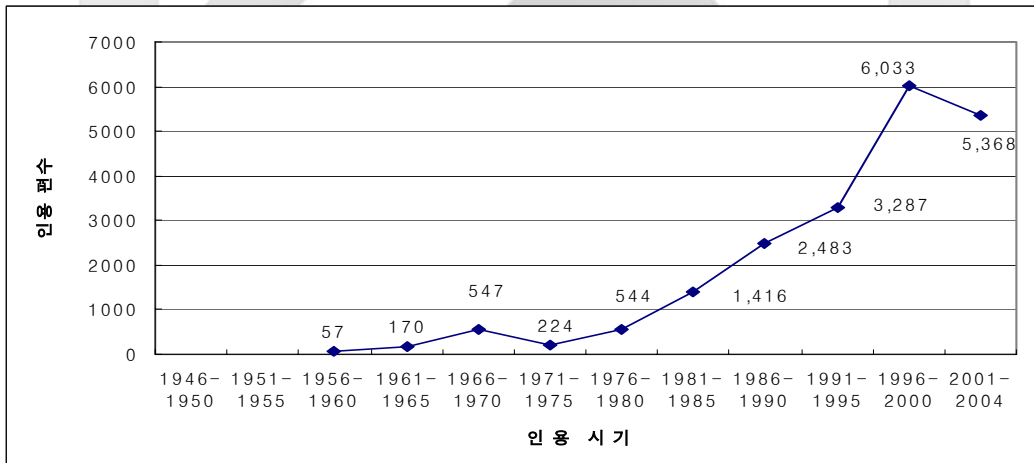
<그림 4>에 의하면 피인용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주제 영역별 분포의 순위는 전술한 3.1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와 <표 4> 참조). 또한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에 인용된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주제 영역별 비중은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의 그것과 대체로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4> 피인용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주제 영역 및 인용시기별 분포

주제영역 \ 인용시기	1946-1950	1951-1955	1956-1960	1961-1965	1966-1970	1971-1975	1976-1980	1981-1985	1986-1990	1991-1995	1996-2000	2001-2004	계	%
문헌정보학기초	-	-	9	33	100	50	135	233	420	397	677	698	2,752	13.7
도서관체제	-	-	3	18	66	23	66	68	176	200	353	270	1,243	6.2
도서관 건물 및 설비	-	-	-	-	1	3	5	11	8	14	9	29	80	0.4
도서관운영	-	-	11	33	87	44	80	178	294	426	933	902	2,988	14.8
참고정보봉사	-	-	6	9	39	25	79	152	197	294	696	735	2,232	11.1
자료조직	-	-	23	58	182	29	86	241	399	563	1,014	820	3,415	17.0
정보학	-	-	2	7	38	31	78	481	948	1,341	2,221	1,627	6,774	33.7
서지학	-	-	3	8	19	15	5	35	12	30	9	28	164	0.8
출판	-	-	-	4	14	4	9	15	27	21	86	65	245	1.2
기록관리학	-	-	-	-	1	-	1	2	2	1	35	194	236	1.2
계(편)	-	-	57	170	547	224	544	1,416	2,483	3,287	6,033	5,368	20,129	-
%	-	-	0.3	0.8	2.7	1.1	2.7	7.0	12.3	16.3	30.0	26.7	-	100.0



〈그림 4〉 조사 대상 논문 및 피인용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주제 영역별 비율



〈그림 5〉 피인용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인용시기별 분포

(2) 인용시기별 분포

피인용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을 5년 간격의 인용시기별 백분율의 순위에 따라 열거하면 1996-2000년(30.0%), 2001-2004년(26.7%), 1991-1995년(16.3%), 1986-1990년(12.3%), 1981-1985년(7.0%), 1966-1970년과 1976-1980년이 각각 2.7%, 1971-1975년(1.1%),

1961-1965년(0.8%), 1956-1960년(0.3%) 등이 다.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과 이곳에 인용된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인용시기별 분포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그림 5〉를 작성하였다.

〈그림 5〉에 의하면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에 인용된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인용시기별

인용률은 「한국문헌정보학회지」가 창간된 1970년 이듬해를 기점으로 최근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14년간(1991-2004년)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에 인용된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인용시기별 인용률(73.0%)은 과거 45년간의 인용률(27.0%)을 현저하게 능가하였다. 이것은 최근 14년간에 발표된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이 과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과 최근에 발표된 논문일수록 그곳에 인용된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인용시기별 인용률이 과거에 비하여 현저히 높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문헌정보학이 최근의 연구결과일수록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에 인용된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은 1946-1955년 기간에 전무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초창기에 발표된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은 논문의 체제를 갖출 여력이 아직 없었고, 더욱이 당시 연구자들의 외국어 학습배경이나 외국 문헌 입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을 인용할 여유가 없을 만큼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였다는 점이 그 원인으로 판단된다.

(3) 주제 영역 및 인용시기별 분포

본 연구의 조사 대상 학술지 논문의 피인용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 총 20,129편을 주제 영역 및 5년 간격의 인용시기별로 조사,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연구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표 4〉 참조).

첫째, 인용된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은 인용시기별로 비중의 차이를 두고 문헌정보학의 모든 주제 영역의 문헌을 인용하였으며, 인용률이

10%가 넘는 영역을 순위에 따라 열거하면 정보학(33.7%), 자료조직(17.0%), 도서관운영(14.8%), 문헌정보학 기초(13.7%), 참고정보봉사(11.1%)이다. 이 5개 분야 문헌은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 전체 인용률의 90.3%이다. 이로써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의 주제 영역별 이곳에 인용된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주제 영역별 비중은 대체로 유사함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와 여기에 인용된 문헌의 주제들은 상호관련성이 있음이 재확인 되었다.

둘째, 최근 14년간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논문 생산성과 같은 기간의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인용률은 모두 상승하였다. 즉, 논문의 생산성이 향상되면 문헌 인용률도 향상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셋째, 인용된 외국 정보학 분야 문헌의 인용시기별 인용률은 1971년부터 계속 상승하였다. 전기한 정보학 분야 문헌의 인용시기별 인용률 가운데 최근 14년간(1991- 2004년)의 인용률(76.6%)이 과거 45년간의 인용률보다 현저히 높았다.

(4) 영역별 하위 주제 및 인용시기별 분포

인용된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하위 주제를 5년 간격의 인용시기별로 구분하여 〈부록 2〉를 작성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문헌정보학의 10개 주제 영역 가운데 상위 5개 주제 영역(정보학 33.7%, 자료조직 17.0%, 도서관운영 14.8%, 문헌정보학 기초 13.7%, 참고정보봉사 11.1%, 합계 90.3%)의 주제 및 인용시기를 중심으로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용된 정보학 분야 외국 문헌의 주제를

인용률의 순위에 따라 열거하면 정보검색(8.3%), 계량정보학(4.2%), 이용연구(3.8%), 정보학 일반(3.0%), 정보축적(2.9%), 도서관자동화(2.8%), 정보기술(2.6%), 디지털도서관(1.7%), 인터넷(1.4%), 전문가시스템(1.1%) 등이다. 인용된 정보학 분야 외국 문헌 전체의 비중(33.7%)을 100으로 환산하면, 상위 4개 주제(정보검색, 계량정보학, 정보학 일반)를 각각 다룬 문헌임을 알 수 있다. 전기한 상위 4개 주제를 다룬 문헌은 최근 14년간(1991-2004년)의 인용률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인용된 자료조직 분야 외국 문헌의 하위 주제를 인용률의 순위에 따라 열거하면 편목(8.1%), 분류(4.6%), 주제분석(3.4%), 자료조직 일반(3.0%), 서지통정(0.3%)이다.

전기한 상위 2개의 주제는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에 인용된 자료조직 분야 외국 문헌 전체(17.0%)의 74.7%를 차지한다. 즉,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에 인용된 자료조직 분야 외국 문헌 5편 중 3편 이상은 분류 및 편목에 관한 문헌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에 인용된 편목과 분류를 다룬 문헌의 인용률은 1971년부터 계속 상승하였으며, 편목과 분류를 다룬 문헌의 인용률을 각각 100으로 환산하면 최근 14년간의 인용률(편목 72.0%, 분류 67.8%)은 과거에 비하여 현저히 높다.

셋째,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에 인용된 도서관운영 분야 외국 문헌의 하위 주제를 인용률의 순위에 따라 열거하면 장서개발/관리(4.5%),

자료의 유형(2.9%), 경영관리(2.5%), 조직관리(2.0%), 도서관 평가(1.4%), 홍보/마케팅(0.7%) 등이다. 전기한 상위 3개 주제(장서개발/관리, 자료의 유형, 경영관리)의 비중(9.9%)은 인용된 도서관운영 분야 외국 문헌 전체(14.8%) 문헌의 66.9%를 차지한다. 즉, 조사 대상 문헌에 인용된 도서관운영 분야 외국 문헌 2편 중 1편 이상은 전기한 3개의 주제를 다룬 문헌임을 알 수 있다.

전술한 상위 3개의 주제를 다룬 문헌의 인용률을 각각 100으로 환산하면 최근 14년간의 인용률(장서개발/관리 76.7%, 자료의 유형 73.1%, 경영관리 76.7%)은 과거에 비하여 현저히 높다.

넷째,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에 인용된 문헌정보학 기초 분야 외국 문헌의 하위 주제를 인용률의 순위에 따라 열거하면 전문성(5.3%), 이론 및 철학(3.9%), 법령/기준(2.4%), 연구(1.1%), 도서관 역사(0.6%), 도서관과 사회(0.4%)이다.

전기한 상위 2개의 주제(전문성, 이론 및 철학)의 비중(9.2%)은 인용된 문헌정보학 기초 분야 외국 문헌 전체(13.7%)의 67.2%를 차지한다. 즉, 조사 대상 문헌에 인용된 문헌정보학 기초 분야 외국 문헌 2편 중 1편 이상은 전문성과 이론 및 철학에 관한 문헌임을 알 수 있다.

전기한 상위 2개 주제의 인용률(9.2%)은 1971년부터 대체로 계속 상승하였고, 전문성, 이론 및 철학을 다룬 문헌의 인용률을 각각 100으로 환산하면 최근 14년간의 주제별 인용률(전문성 62.3%, 이론 및 철학 60.8%)은 과거에 비하여 현저히 높다.

다섯째,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에 인용된 참고정보봉사 분야 외국 문헌의 하위 주제를 인

용률의 순위에 따라 열거하면 참고봉사 일반(2.5%), 정보봉사 일반(2.3%), 이용자교육(1.8%), 봉사의 효율성 평가(1.6%), 도서교육/치료(1.0%) 등이다.

전기한 상위 4개의 주제(참고봉사 일반, 정보봉사 일반, 이용자교육, 봉사의 효율성 평가)의 비중(8.2%)은 인용된 참고정보봉사 분야 외국 문헌 전체(11.1%)의 73.9%를 차지한다. 즉, 조사 대상 문헌에 인용된 참고정보봉사 분야 외국 문헌 3편 중 2편 정도는 전기한 4개 주제의 문헌임을 알 수 있다.

전술한 4개의 주제를 다룬 문헌의 인용률은 1971년부터 계속 상승하였고, 이것의 인용률을 각각 100으로 환산하면 최근 14년간의 인용률(참고봉사 일반, 78.9%, 정보봉사 일반 72.1, 이

용자교육, 76.5, 봉사의 효율성 평가 87.1%)은 과거에 비하여 현저히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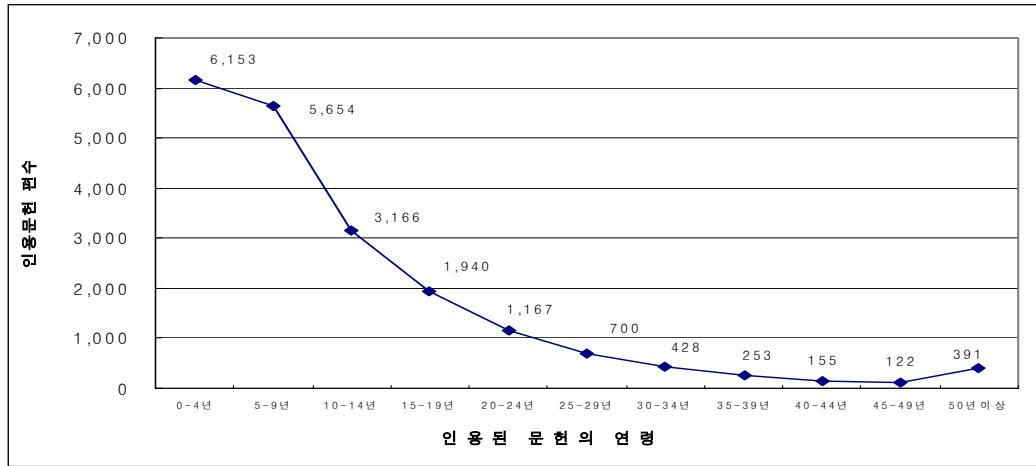
4.1.2 주제 영역 및 연령별 분포

본 연구의 가설 II-2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조사 대상 문헌에 인용된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 20,129편을 주제 및 5년 간격의 문헌의 연령별로 집계하여 <표 5>와 <부록 3>을 작성하였다(오세훈 2005, 137-144).

<표 5>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에 인용된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연령별 분포와 인용된 문헌의 주제 영역 및 연령별 분포, 인용된 문헌의 하위 주제 및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피인용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주제 영역 및 연령별 분포

주제영역	연령												계 (편)	%
	0-4년	5-9년	10-14년	15-19년	20-24년	25-29년	30-34년	35-39년	40-44년	45-49년	50년 이상			
문헌정보학 일반	735	709	468	278	202	101	67	47	36	29	80	2,752	13.7	
도서관체제	458	340	164	93	59	45	25	14	15	9	21	1,243	6.2	
도서관 건물 및 설비	27	18	13	13	4	2	-	1	-	-	2	80	0.4	
도서관운영	950	905	443	283	174	93	39	32	15	15	39	2,988	14.8	
참고정보봉사	748	616	337	179	114	80	54	26	11	18	49	2,232	11.1	
자료조직	805	935	571	344	197	140	111	75	40	38	159	3,415	17.0	
정보학	2,207	1,969	1,079	684	389	223	121	49	30	9	14	6,774	33.7	
서지학	23	27	27	28	12	10	6	5	4	3	19	164	0.8	
출판	106	80	27	10	9	4	2	1	1	-	5	245	1.2	
기록관리학	94	55	37	28	7	2	3	3	3	1	3	236	1.2	
계(편)	6,153	5,654	3,166	1,940	1,167	700	428	253	155	122	391	20,129	-	
%	30.6	28.1	15.7	9.6	5.8	3.5	2.1	1.3	0.8	0.6	1.9	-	100.0	



〈그림 6〉 피인용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연령별 분포

(1) 문헌의 연령별 분포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에 인용된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연령을 인용률의 순위에 따라 열거하면 0-4년(30.6%), 5-9년(28.1%), 10-14년(15.7%), 15-19년(9.6%), 20-24년(5.8%), 25-29년(3.5%), 30-34년(2.1%), 50년 이상(1.9%), 35-39년(1.3%), 40-44년(0.8%), 45-49년(0.6%)이다. 즉,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은 외국의 문헌정보학 문헌을 이용할 때 2편 중 1편 이상은 간행된 지 10년 미만의 최신 문헌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를 바탕으로 문헌의 연령별 분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조사 대상 문헌에 인용된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을 5년 간격의 연령별로 구분하여 〈그림 6〉을 작성하였다.

〈그림 6〉에 의하면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에 인용된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그 이용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인용된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가치 역시 점차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에 인용된 최근 10년 미만의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인용률은 58.7%이다. 따라서 전기한 외국 문헌의 반감기는 10년 미만이며, 10년을 경과하면 이 문헌의 가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은 외국의 문헌정보학 문헌을 이용할 때 2편 중 1편 이상은 간행된 지 10년 미만의 최신 문헌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은 늘 최신 문헌에 주목하면서 향후 최신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에 기반을 둔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2) 주제 영역 및 문헌의 연령별 분포

〈표 5〉를 조사,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에 인용된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은 연령별로 비중의 차이는 있으나 문헌정보학의 모든 영역의 문헌을 인용하였으며, 인용률이 10%가 넘는 주제 영역을 순위

에 따라 열거하면 정보학(33.7%), 자료조직(17.0%), 도서관운영(14.8%), 문헌정보학 기초(13.7%), 참고정보봉사(11.1%)이다. 이 5개 영역의 인용률은 인용된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 전체 인용률의 90.3%이다.

둘째, 인용된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주제 영역별 문헌의 반감기는 서지학 분야(19년)를 제외하고 모두 10년 미만이다.

셋째, 인용된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 가운데 연령이 긴 주제 영역을 문헌의 연령순으로 제시하면 자료조직, 문헌정보학 기초, 참고정보봉사, 도서관운영, 도서관체제, 서지학, 정보학 등이다.

(3) 영역별 하위 주제 및 연령별 분포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에 인용된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하위 주제 및 연령별 분포를 조사, 분석하기 위하여 <부록 3>을 작성하였다. <부록 3>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인용된 외국 정보학 분야 외국 문헌의 하위 주제의 연령별 분포를 100으로 환산하여 그 반감기를 살펴보면 정보축적(74.4%), 정보기술(59.8%), 정보검색(57.8%), 정보학 일반(55.2%)을 다룬 문헌의 반감기는 10년 미만이며, 디지털도서관(96.8%), 인터넷(94.5%)을 다룬 문헌의 반감기는 5년 미만이고, 이용연구(49.7%), 계량정보학(49.3%)을 다룬 문헌의 반감기는 15년 미만이다.

둘째, 인용된 자료조직 분야 외국 문헌의 하위 주제의 연령별 분포를 100으로 환산하여 그 반감기를 살펴보면 편목(55.2%), 서지통정(54.1%), 자료조직 일반(53.8), 주제분석(53.6%)을 다룬 문헌의 반감기는 10년 미만이며, 분류(41.1%)를 다룬 문헌의 반감기는 15년 미만이다.

셋째, 인용된 도서관운영 분야 외국 문헌의 하위 주제의 연령별 분포를 100으로 환산하여 그 반감기를 살펴보면 인사관리를 다룬 문헌의 반감기는 15년 미만이고, 이것을 제외한 주제를 다룬 문헌의 반감기는 모두 10년 미만이다.

넷째, 인용된 문헌정보학 기초 분야 외국 문헌의 하위 주제의 연령별 분포를 100으로 환산하여 그 반감기를 살펴보면 도서관 역사를 다룬 문헌의 반감기는 15년 미만이고, 이것을 제외한 주제를 다룬 문헌의 반감기는 모두 10년 미만이다.

다섯째, 인용된 참고정보봉사 분야 외국 문헌의 하위 주제의 연령별 분포를 100으로 환산하여 그 반감기를 살펴보면 전자정보서비스(53.2%)를 다룬 문헌의 반감기는 5년 미만이고, 초록/색인/번역봉사(32.0%)를 다룬 문헌의 반감기는 15년 미만이며, 나머지 주제를 각각 다룬 문헌의 반감기는 모두 10년 미만이다.

4. 2 피인용 타 학문 분야 문헌 분석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에 인용된 타 학문 분야의 문헌 10,289편을 조사하고, 조사된 문헌을 DDC 22판과 두 편의 참고문헌(이삼열 등: 오기평 등)에 근거하여 주제를 분석하였다.

4.2.1 학문 분야 및 인용시기별 분포

(1) 학문 분야별 분포

본 연구의 조사 대상 문헌에 인용된 타 학문 분야 문헌을 학문 분야 및 5년 간격의 인용시기별로 조사한 결과를 다음 <표 6>과 <부록 4>로 작성하였다(오세훈 2005, 145-148).

〈표 6〉 피인용 타 학문 분야 문헌의 학문 분야 및 인용시기별 분포

인용시기 학문분야	1946- 1950	1951- 1955	1956- 1960	1961- 1965	1966- 1970	1971- 1975	1976- 1980	1981- 1985	1986- 1990	1991- 1995	1996- 2000	2001- 2004	합계	%
학문일반	-	-	-	-	3	8	6	7	19	35	70	69	217	2.1
인문과학	-	-	-	-	8	59	35	47	126	119	281	421	1,096	10.7
사회과학	-	-	5	2	20	100	165	157	589	853	1,711	2,425	6,027	58.6
순수과학	-	-	-	1	1	2	3	26	74	48	43	51	249	2.4
기술과학	-	-	-	-	-	6	9	77	260	328	802	1,088	2,570	25.0
예술/체육	-	-	1	2	3	2	3	-	4	27	53	35	130	1.3
합계(편)	-	-	6	5	35	177	221	314	1,072	1,410	2,960	4,089	10,289	-
%	-	-	0.1	0.0	0.3	1.7	2.1	3.1	10.4	13.7	28.8	39.7	-	100.0

〈표 6〉에 나타난 인용된 타 학문 분야 문헌을 학문 분야별 인용률의 순위에 따라 열거하면 사회과학(58.6%), 기술과학(25.0%), 인문과학(10.7%), 순수과학(2.4%), 학문일반(2.1%), 예술/체육(1.3%)이다. 이것은 조사 대상 기간 동안의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타 학문 분야 문헌에 대한 의존도 및 선호도를 의미한다. 즉,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은 타 학문 분야의 문헌을 인용할 때 2편 중 1편 이상은 사회과학 문헌일 정도로 다른 학문 분야에 비하여 사회과학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의존도는 낮으나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나머지 5개의 학문 분야를 다른 문헌을 빠짐없이 인용하는 연구동향을 보이고 있는 점에서 문헌정보학은 학제성이 높은 학문 분야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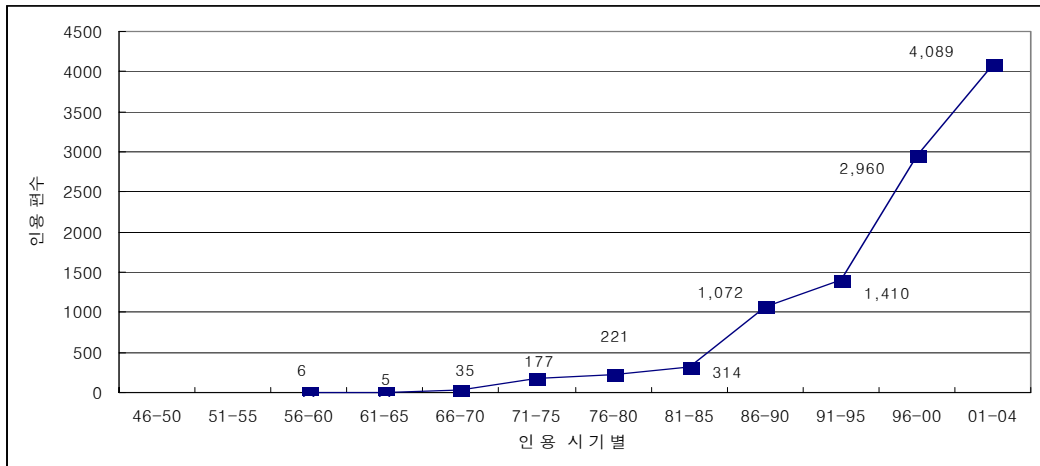
본 연구의 조사 대상 논문에 인용된 문헌은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이 20,129편(66.2%)이고, 타 학문 분야 문헌이 10,289편(33.8%)으로 조사되었다. 즉,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자 분

야 의존도는 66.2%(20,129편/30,418편)이고, 타 분야 의존도는 33.8% (10,289편/30,418편)이다. 앞에서 기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우리나라 문헌정보학은 학제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회과학의 성격이 강하다는 사실이 재확인 되었다.

(2) 인용시기별 분포

본 연구의 조사 대상 문헌에 인용된 타 학문 분야 문헌을 5년 간격의 인용시기별 백분율의 순위에 따라 열거하면 2001-2004년(39.7%), 1996-2000년(28.8%), 1991-1995년(13.7%), 1981-1985년(3.1%), 1976-1980년(2.1%), 1971-1975년(1.7%), 1966-1970년(0.3%), 1956-1960년(0.1%)이다. 인용된 타 학문 분야 문헌의 인용시기별 분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림 7〉을 작성하였다.

〈그림 7〉에 의하면 본 연구의 조사 대상 문헌에 인용된 타 학문 분야 문헌은 인용시점을 기준으로 최근에 간행된 문헌일수록 그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과거로 갈수록 인용률은 계속 하



〈그림 7〉 피인용 타 학문 분야 문헌의 인용시기별 분포

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9년(1996-2004년)에 인용된 인용률(68.5%)은 과거 50년간의 인용률을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 문헌에 인용된 타 학문 분야 문헌은 1946-1955년 기간에 인용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초창기에 발표된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논문은 논문의 체계를 갖출 여력이 아직 없었고, 당시에는 타 학문 분야의 이론이나 연구 성과를 인용할 만큼 연구논문의 수준이 현재와 같지 않았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3) 학문 분야 및 인용시기별 분포

〈표 6〉에 나타난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에 인용된 타 학문 분야의 주제 및 인용시기별 분포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의 동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에 인용된 타 학문 분야 문헌은 인용시기별로 비중의 차이를 두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6개의 모든 학문 분

야의 문헌을 인용하였다.

둘째, 최근 14년간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에 인용된 타 학문 분야 문헌 인용률(82.3%)은 사회과학(48.5%), 기술과학(21.6%), 인문과학(8.0%), 학문일반(1.7%), 순수과학(1.4%), 예술/체육(1.1%)의 순위이다.

(4) 주제 및 인용시기별 분포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에 인용된 타 학문 분야 문헌의 주제 및 인용시기별 분포를 조사하여 〈부록 4〉를 작성하였고, 이것을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은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45개에 이르는 타 학문 분야의 문헌을 비중의 차이를 두면서 인용하였다. 인용률의 순위에 따라 주제를 열거하면, 컴퓨터공학(21.8%), 경영학(16.7%), 교육학(11.5%), 사회학(10.1%) 등이다. 전술한 4개 주제는 인용된 타 학문 분야 문헌 전체의 60.1%이다. 즉,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인용하는 타 학문 분

야 문헌의 주제는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 극소수 주제의 문헌을 집중 인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 논문에 인용된 타 학문 분야 문헌 가운데 인용률이 10% 이상인 학문 분야의 주제 및 인용시기별 분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용된 사회과학 분야 문헌의 주제를 인용률의 순위에 따라 열거하면 경영학(16.7%), 교육학(11.5%), 사회학(10.1%), 경제학(4.5%), 법학(3.7%), 심리학(3.2%), 행정학(3.1%), 정치학, 사회복지학, 무역학(각각 1.4%), 통계학과 신문방송학(각각 0.6%), 지리학(0.5%)이다. 즉,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은 사회과학 분야 문헌을 인용할 때, 경영학 문헌을 가장 선호하였다. 상대적으로 선호도는 낮으나 나머지 11개 주제를 다룬 문헌을 빠짐없이 인용하는 연구동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9년(1996-2004년)간 이 연구자들이 인용한 사회과학 분야 문헌의 인용률은 사회과학 문헌 전체 인용률의 68.6%이다.

둘째, 인용된 기술과학 분야 문헌의 주제를 인용률의 순위에 따라 열거하면 컴퓨터공학(21.8%), 공업(1.0%), 기술과학 일반(0.8%), 의학(0.9%), 건축공학(0.2%), 농학과 가정학(각각 0.1%) 등이다. 즉,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은 기술과학 분야의 문헌을 인용할 때 대부분 컴퓨터공학을 다룬 문헌을 인용할 정도로 컴퓨터공학 문헌을 선호하였다. 상대적으로 선호도는 낮으나 화학공학을 제외한 나머지 7개의 주제 분야 문헌을 빠짐없이 인용하는 연구동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9년간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인용한 기술과학 문헌의 인용률은 기술과학 분야 문헌 전체 인용률의 73.5%이다.

셋째, 인용된 인문과학 분야 문헌의 주제를 인

용률의 순위에 따라 열거하면 언어학(3.7%), 역사(3.1%), 문학(2.1%), 철학(0.8%), 종교신학, 윤리학(각각 0.4%), 논리학(0.1%)이다.

최근 9년간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인용한 인문과학 분야 문헌의 인용률은 이 분야 문헌 전체 인용률의 64.1%이다.

4.2.2 학문 분야 및 문헌의 연령별 분포

본 연구의 가설 II-4을 검증하기 위하여 인용된 타 학문 분야 문헌 10,289편을 학문 분야 및 5년 간격의 문헌의 연령별로 집계하여 <표 7>과 <부록 5>를 작성하였다(오세훈 2005, 149-152).

(1) 문헌의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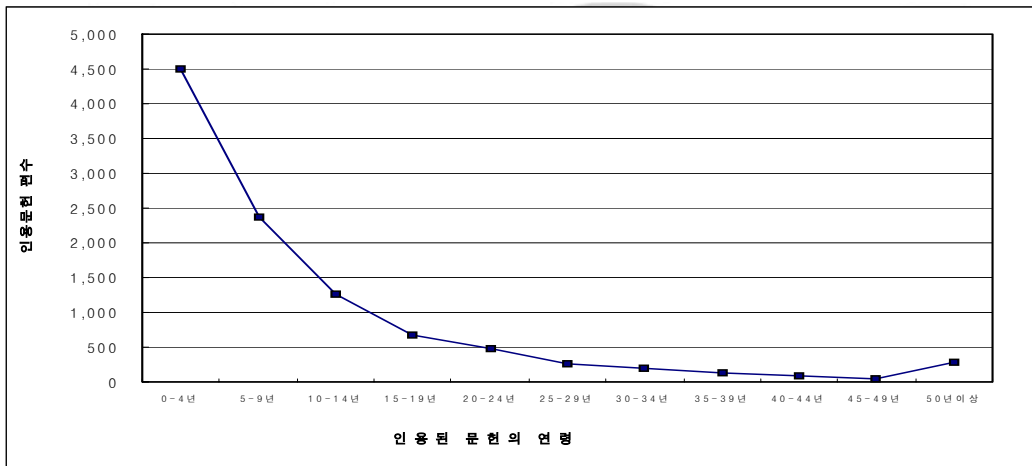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에 인용된 타 학문 분야 문헌의 연령을 인용률의 순위에 따라 열거하면 0-4년(43.8%), 5-9년(23.0%), 10-14년(12.2%), 15-19년(6.6%), 20-24년(4.6%), 50년 이상(2.8%), 25-29년(2.5%), 30-34년(1.9%), 35-39년(1.2%), 40-44년(0.8%), 45-49년(0.4%)이다. 즉,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인용한 타 학문 분야 문헌 5편 중 3편 이상은 간행된 지 10년 미만일 정도로 이들은 최신 문헌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용된 타 학문 분야 문헌의 연령별 분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표 7>을 근거로 <그림 8>을 작성하였다.

<그림 8>에 의하면 피인용 타 학문 분야 문헌의 인용률은 문헌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그 인용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간행 후 10년이 경과하면 인용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15년 이후부터 인용률이 천천히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피인용 타 학문 분야 문헌의 학문 분야 및 연령별 분포

연령 분야	연령											합계	%
	0-4년	5-9년	10-14년	15-19년	20-24년	25-29년	30-34년	35-39년	40-44년	45-49년	50년 이상		
학문일반	79	53	29	23	16	6	7	1	-	2	1	217	2.1
인문과학	297	254	187	74	77	28	37	22	14	7	99	1,096	10.7
사회과학	2,574	1,305	734	448	307	192	129	83	63	24	168	6,027	58.6
순수과학	63	66	41	32	22	13	5	3	1	1	2	249	2.4
기술과학	1,455	659	252	93	45	13	16	10	6	8	13	2,570	25.0
예술/체육	41	34	15	13	6	4	6	1	1	2	7	130	1.3
합계(편)	4,509	2,371	1,258	683	473	256	200	120	85	44	290	10,289	-
%	43.8	23.0	12.2	6.6	4.6	2.5	1.9	1.2	0.8	0.4	2.8	-	100.0



〈그림 8〉 피인용 타 학문 분야 문헌의 연령별 분포

이로써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인용한 타 학문 분야 문헌의 반감기는 평균 10년임을 알 수 있다.

(2) 학문 분야 및 문헌의 연령별 분포

〈표 7〉에 나타난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에 인용된 타 학문 분야의 학문 분야 및 문헌의 연령별 분포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인용한 타 학문 분야 문헌의 반감기는 평균 10년이다. 그들이 인용한 타 학문 분야 문헌은 문헌의 연령별로 비중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학문 분야의 문헌을 인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인용된 타 학문 분야 문헌의 반감기를 살펴보면 기술과학 문헌은 5년 미만이고 나머지 분야의 문헌은 모두 10년 미만이다.

(3) 주제 및 문헌의 연령별 분포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에 인용된 타 학문 분야 문헌의 세부 주제 및 연령별 분포를 조사, 분석하여 <부록 5>를 작성하였다. 인용된 타 학문 분야를 상위 3개 분야로 한정하여 학문 분야별 세부 주제의 반감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용된 사회과학 분야 문헌의 세부 주제별 반감기는, 경제학, 법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무역학, 신문방송학 문헌은 5년이고, 심리학 문헌의 반감기는 20년이며, 사회학을 비롯한 나머지 문헌의 반감기는 10년이다.

둘째, 인용된 기술과학 분야 문헌의 세부 주제별 반감기는 컴퓨터공학 문헌만 5년이고, 나머지는 모두 10년이다.

셋째, 인용된 인문과학 분야 문헌의 세부 주제별 반감기는 윤리학이 5년이고, 종교신학, 논리학,

언어학, 문학이 각각 10년이며, 철학과 역사 문헌의 반감기는 각각 20년이다.

4. 3 가설 II의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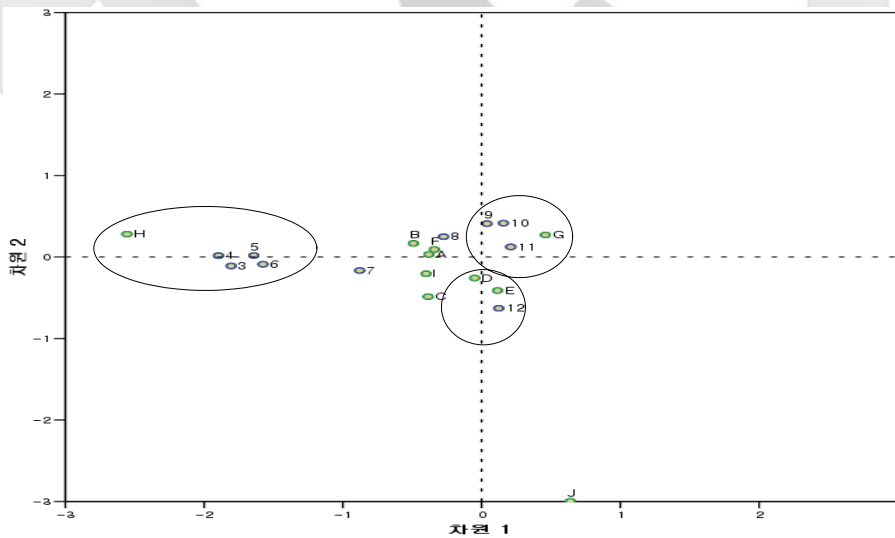
4.3.1 분석 결과

(1) 가설 II-1

본 연구의 가설 II-1을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성 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표 8>로 작성하였다.

<표 8> 피인용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주제 영역 및 인용시기의 독립성 검증 결과

독립성 검증	χ^2	자유도(df)	p값
	1587.535	81	5.270e-278



<그림 9> 피인용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주제 영역과 인용시간의 대응분석 결과

※ A: 문헌정보학 기초, B: 도서관 체제, C: 도서관 건물 및 설비, D: 도서관운영, E: 참고정보봉사,
 F: 자료조직, G: 정보학, H: 서지학, I: 출판, J: 기록관리학.
 1: 1946-1950년, 2: 1951-1955년, 3: 1956-1960년, 4: 1961-1965년, 5: 1966-1970년, 6: 1971-1975년,
 7: 1976-1980년, 8: 1981-1985년, 9: 1986-1990년, 10: 1991-1995년, 11: 1996-2000년, 12: 2001-2004년.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성을 검증한 결과, χ^2 값이 1587.535이고 p값이 0.000보다 작으므로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인용된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주제 영역과 인용시기 간에 상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주제 및 인용시기 간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다변량 분석기법인 대응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9〉로 작성하였다.

〈그림 9〉는 인용된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주제 영역과 인용시기간의 관계에 대한 대응분석 결과로서 행(行)과 열(列)을 타점(打點)한 것이다. 차원 1축을 기준으로 음수 쪽을 살펴보면 인용된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 가운데 서지학 분야 문헌의 인용 시기는 1956-1960년, 1961-1965년, 1966-1970년, 1971-1975년에 군집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양수 쪽을 살펴보면 정보학 분야 문헌의 인용 시기는 1986-1990년, 1991-1995년 및 1996-2000년에, 도서관운영과 참고정보봉사 분야 문헌의 인용 시기는 2001-2004년에 각각 군집을 이루고 있다.

앞에서 밝힌 내용에 의하여 본 연구의 가설 II-1은 검증되었다.

(2) 가설 II-2

가설 II-2를 검증하기 위하여 〈표 6〉을 일원 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one-way ANOVA)하였고, 그 결과를 〈표 9〉로 작성하였다.

〈표 9〉에 나타난 분산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F값이 61.772이고, p값(유의확률)이 0.000보다 작다. 따라서 유의수준을 0.05로 하였을 때, 문헌의 주제는 그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어떠한 주제들이 문헌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고, 또는 차이가 없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비교(사후비교)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문헌정보학 기초 영역 문헌은 도서관 건물 및 설비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 문헌과 문헌의 연령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둘째, 도서관체제 영역 문헌은 도서관운영, 자료조직, 정보학, 출판 및 기록관리학 영역 문헌과 문헌의 연령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셋째, 도서관운영 영역 문헌은 정보학 및 기록관리학 영역 문헌과 문헌의 연령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넷째, 참고정보봉사 영역 문헌은 도서관운영, 정보학 및 기록관리학 영역 문헌과 문헌의 연령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다섯째, 기록관리학 영역 문헌은 문헌정보학의 모든 주제 영역 문헌과 문헌의 연령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표 9〉 피인용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분산분석 결과

구 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합	F	p값(유의확률)
집단-간	101632,528	9	11292,503	61.772	2,329e-112
집단-내	3677917,294	20119	182,808		
합 계	3779549,822	20128			

<표 10> 피인용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주제 영역간 다중 비교 결과

종속변수 : 연령
Tukey HSD

주제 (I)	주제 (J)	평균차 (I-J)	표준 오차	유의 확률	95% 신뢰구간		주제 (I)	주제 (J)	평균차 (I-J)	표준 오차	유의 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하한값	상한값
A	B	-11.010(*)	.661	.000	-13.10	-8.92	F	A	5.722(*)	.870	.000	2.97	8.48
	C	-5.813	2.088	.142	-12.42	.80		B	-5.288(*)	1.029	.000	-8.54	-2.03
	D	-4.452(*)	.335	.000	-5.51	-3.39		C	-.091	2.232	1.000	-7.15	6.97
	E	-7.580(*)	.718	.000	-9.85	-5.31		D	1.270	.857	.900	-1.44	3.98
	F	-5.722(*)	.870	.000	-8.48	-2.97		E	-1.858	1.066	.771	-5.23	1.52
	G	-3.310(*)	.390	.000	-4.55	-2.07		G	2.412	.880	.157	-.37	5.20
	H	-7.533(*)	1.130	.000	-11.11	-3.96		H	-1.811	1.378	.951	-6.17	2.55
	I	-6.587(*)	.925	.000	-9.51	-3.66		I	-.865	1.215	.999	-4.71	2.98
	J	-18.797(*)	.730	.000	-21.11	-16.49		J	-13.076(*)	1.075	.000	-16.48	-9.67
	B	A	11.010(*)	.661	.000	8.92		13.10	G	A	3.310(*)	.390	.000
C		5.197	2.159	.321	-1.63	12.03	B	-7.700(*)		.673	.000	-9.83	-5.57
D		6.558(*)	.643	.000	4.52	8.59	C	-2.503		2.092	.973	-9.12	4.12
E		3.430(*)	.903	.006	.57	6.29	D	-1.142(*)		.359	.047	-2.28	-.01
F		5.288(*)	1.029	.000	2.03	8.54	E	-4.270(*)		.729	.000	-6.58	-1.96
G		7.700(*)	.673	.000	5.57	9.83	F	-2.412		.880	.157	-5.20	.37
H		3.477	1.256	.148	-5.50	7.45	H	-4.223(*)		1.137	.008	-7.82	-.62
I		4.423(*)	1.075	.002	1.02	7.83	I	-3.277(*)		.934	.016	-6.23	-.32
J		-7.787(*)	.913	.000	-10.68	-4.90	J	-15.488(*)		.741	.000	-17.83	-13.14
C		A	5.813	2.088	.142	-.80	12.42	H		A	7.533(*)	1.130	.000
	B	-5.197	2.159	.321	-12.03	1.63	B		-3.477	1.256	.148	-7.45	.50
	D	1.361	2.083	1.000	-5.23	7.95	C		1.720	2.346	.999	-5.70	9.14
	E	-1.767	2.177	.998	-8.66	5.12	D		3.081	1.120	.154	-.46	6.62
	F	.091	2.232	1.000	-6.97	7.15	E		-.047	1.287	1.000	-4.12	4.03
	G	2.503	2.092	.973	-4.12	9.12	F		1.811	1.378	.951	-2.55	6.17
	H	-1.720	2.346	.999	-9.14	5.70	G		4.223(*)	1.137	.008	.62	7.82
	I	-.774	2.254	1.000	-7.91	6.36	I		.947	1.413	1.000	-3.53	5.42
	J	-12.985(*)	2.181	.000	-19.89	-6.08	J		-11.264(*)	1.294	.000	-15.36	-7.17
	D	A	4.452(*)	.335	.000	3.39	5.51		I	A	6.587(*)	.925	.000
B		-6.558(*)	.643	.000	-8.59	-4.52	B	-4.423(*)		1.075	.002	-7.83	-1.02
C		-1.361	2.083	1.000	-7.95	5.23	C	.774		2.254	1.000	-6.36	7.91
E		-3.128(*)	.701	.000	-5.35	-.91	D	2.134		.912	.363	-.75	5.02
F		-1.270	.857	.900	-3.98	1.44	E	-.993		1.111	.997	-4.51	2.52
G		1.142(*)	.359	.047	.01	2.28	F	.865		1.215	.999	-2.98	4.71
H		-3.081	1.120	.154	-6.62	.46	G	3.277(*)		.934	.016	.32	6.23
I		-2.134	.912	.363	-5.02	.75	H	-.947		1.413	1.000	-5.42	3.53
J		-14.345(*)	.714	.000	-16.60	-12.09	J	-12.211(*)		1.119	.000	-15.75	-8.67
E		A	7.580(*)	.718	.000	5.31	9.85	J		A	18.797(*)	.730	.000
	B	-3.430(*)	.903	.006	-6.29	-.57	B		7.787(*)	.913	.000	4.90	10.68
	C	1.767	2.177	.998	-5.12	8.66	C		12.985(*)	2.181	.000	6.08	19.89
	D	3.128(*)	.701	.000	.91	5.35	D		14.345(*)	.714	.000	12.09	16.60
	F	1.858	1.066	.771	-1.52	5.23	E		11.218(*)	.955	.000	8.19	14.24
	G	4.270(*)	.729	.000	1.96	6.58	F		13.076(*)	1.075	.000	9.67	16.48
	H	.047	1.287	1.000	-4.03	4.12	G		15.488(*)	.741	.000	13.14	17.83
	I	.993	1.111	.997	-2.52	4.51	H		11.264(*)	1.294	.000	7.17	15.36
	J	-11.218(*)	.955	.000	-14.24	-8.19	I		12.211(*)	1.119	.000	8.67	15.75

A: 문헌정보학 기초, B: 도서관체제, C: 도서관 건물 및 설비, D: 도서관운영, E: 참고정보봉사, F: 자료조직, G: 정보학, H: 서지학, I: 출판, J: 기록관리학

(3) 가설 II-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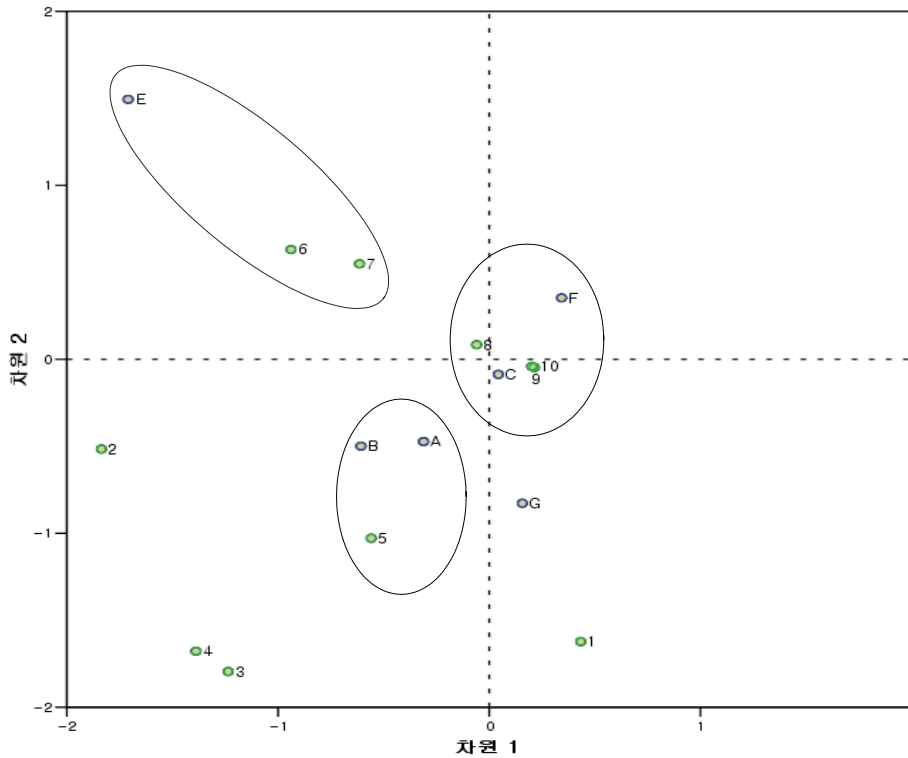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에 인용된 타 학문 분야 문헌의 학문 분야와 인용시기 간의 상관성의 유무를 검증하기 위하여 <표 7>을 독립성 검증하였고, 그 결과를 <표 11>로 작성하였다.

<표 11>에 의하면 χ^2 값이 541.858^a이고 p값이 0.000보다 작으므로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에 인용된 타 학문 분야 문헌의 주제와 인용시기 간에 상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11> 피인용 타 학문 분야 문헌의 독립성 검증 결과

독립성 검증	χ^2	자유도(df)	p값
	541.858 ^a	45	2.005e-086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에 인용된 타 학문 분야 문헌의 학문 분야 및 인용시기별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다변량 분석기법인 대응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10>으로 작성하였다. 그림에서 알파벳은 학문 분야를 나타내고, 숫자는 인용시기를 나타낸다.



<그림 10> 피인용 타 학문 분야 문헌의 학문 분야 및 인용시기별 대응분석 결과

- A: 학문일반, B: 인문과학, C: 사회과학, E: 순수과학, F: 기술과학, G: 예술/체육
- 1: 1946-1950년, 2: 1951-1955년, 3: 1956-1960년, 4: 1961-1965년, 5: 1966-1970년, 6: 1971-1975년, 7: 1976-1980년, 8: 1981-1985년, 9: 1986-1990년, 10: 1991-1995년, 11: 1996-2000년, 12: 2001-2004년.

〈그림 10〉은 대응분석 결과로서 행과 열을 타점한 것이다. 차원 1축을 기준으로 인용시기 1971-1975년과 1976-1980년, 1966년-1970년이 음의 값을 갖고, 순수과학 및 학문일반, 인문과학, 예술/체육이 상대적으로 큰 음의 수를 갖는다. 따라서 순수과학 문헌은 인용시기 1971-1975년과 1976-1980년, 학문일반 및 인문과학 문헌은 인용시기 1966-1970년과 매우 관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양수 쪽을 살펴보면 인용시기 1981-1985년, 1986-1990년, 1991-1995년이 양의 값을 갖고, 사회과학과 기술과학이 각각 상대적으로 양의 수를 갖는다. 따라서 사회과학 및 기술과학 문헌은 인용시기 1981-1995년과 매우 관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4) 가설 II-4

가설 II-4를 검증하기 위하여 〈표 7〉을 일원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피인용 타 학문 분야 문헌의 분산분석 결과

구 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95663.137	5	19132.627	107.876	2.166e-111
집단-내	1823770.932	10283	177.358		
합 계	1919434.069	10288			

〈표 12〉에 의하면 F값이 107.876이고, P값(유의확률)이 0.000보다 작다. 따라서 유의수준 0.05로 하였을 때,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에 인용된 타 학문 분야 문헌의 주제는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에 인용된 타 학문 분야 문헌은 어떠한 주제들이 유의한 차이가 있고, 또는 차이가 없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비교(사후비교)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피인용 타 학문 분야 문헌의 학문 분야간 다중 비교 결과

종속변수 : 연령
Tukey HSD

주제 (I)	주제 (J)	평균차 (I-J)	표준 오차	유의 확률	95% 신뢰구간		주제 (I)	주제 (J)	평균차 (I-J)	표준 오차	유의 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하한값	상한값
A	B	-.634(*)	.990	.000	-9.45	-3.81	E	A	1.662	1.237	.760	-1.86	5.19
	C	-5.91	.920	.988	-3.21	2.03		B	-4.972(*)	.935	.000	-7.64	-2.31
	E	-1.662	1.237	.760	-5.19	1.86		C	1.071	.861	.815	-1.38	3.53
	F	4.073(*)	.941	.000	1.39	6.76		F	5.736(*)	.884	.000	3.22	8.26
	G	-4.072	1.477	.065	-8.28	.14		G	-2.410(*)	1.441	.550	-6.52	1.70
B	A	6.634(*)	.990	.000	3.81	9.45	F	A	-4.073(*)	.941	.000	-6.76	-1.39
	C	6.043(*)	.437	.000	4.80	7.29		B	-10.707(*)	.480	.000	-12.08	-9.34
	E	4.972(*)	.935	.000	2.31	7.64		C	-4.665(*)	.314	.000	-5.56	-3.77
	F	10.707(*)	.480	.000	9.34	12.08		E	-5.736(*)	.884	.000	-8.26	-3.22
	G	2.562	1.235	.301	-.96	6.08		G	-8.146(*)	1.197	.000	-11.56	-4.73
C	A	.591	.920	.988	-2.03	3.21	G	A	4.072	1.477	.065	-.14	8.28
	B	-6.043(*)	.437	.000	-7.29	-4.80		B	-2.562	1.235	.301	-6.08	.96
	E	-1.071	.861	.815	-3.53	1.38		C	3.481	1.181	.038	.12	6.85
	F	4.665(*)	.314	.000	3.77	5.56		E	2.410(*)	1.441	.550	-1.70	6.52
	G	-3.481(*)	1.181	.038	-6.85	-.12		F	8.146(*)	1.197	.000	4.73	11.56

※ A: 학문일반, B: 인문과학, C: 사회과학, E: 순수과학, F: 기술과학, G: 예술

〈표 13〉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검증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에 인용된 타 학문 분야 문헌 가운데 기술과학 분야는 모든 학문 분야 문헌과 문헌의 연령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둘째, 학문일반 분야 문헌은 인문과학 분야 문헌과 문헌의 연령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셋째, 인문과학 분야의 문헌은 사회과학 및 순수과학 분야 문헌과 문헌의 연령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4.3.2 가설 II의 검증 결과

(1) 피인용 외국문헌정보학 문헌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에 인용된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 총 20,129편을 주제 및 인용시기별과, 주제 및 문헌의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의 동향을 확인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발표한 연구 결과의 주제 영역별 비중과 여기에 인용된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영역별 비중은 대체로 유사하다는 것과 이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와 여기에 인용된 문헌의 주제 영역은 상호관련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최근 15년간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논문 생산성과 그들의 연구 결과에 인용된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인용률은 모두 상승하였다. 즉, 논문의 생산성이 향상되면 문헌 인용률도 상승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주목한 외국 문헌정보학의 주제 영역은 10개의 주제 영

역 가운데 정보학, 도서관운영, 자료조직, 문헌정보학 기초, 참고정보봉사 등 5개 주제 영역이다.

넷째,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은 외국의 문헌정보학 문헌을 이용할 때 2편 중 1편 이상일 정도로 간행된 지 10년 미만의 최신 문헌을 선호하며, 인용된 외국 문헌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인용률이 점차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은 늘 최신 문헌에 주목하면서 향후 최신 외국 문헌에 기반을 둔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인용한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반감기는 서지학 분야 문헌을 제외하고, 모두 10년이다. 또한, 하위 주제별 반감기도 대부분 10년 미만이지만 분류, 인사관리, 도서관 역사, 초록/색인/번역봉사에 대한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반감기는 15년 미만이다.

(2) 피인용 타 학문 분야 문헌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에 인용된 타 학문 분야 문헌 총 10,289편을 주제 및 인용시기별, 주제 및 문헌의 연령별로 각각 분석한 결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동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은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45개에 이르는 타 학문 분야의 문헌을 인용하였다. 그 인용률의 순위는 사회과학(58.6%), 기술과학(25.0%), 인문과학(10.7%), 순수과학(2.4%), 예술/체육(1.3%)이다.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타 학문 분야 문헌 의존도는 33.8%이다. 이를 통해 문헌정보학은 학제성이 높은 학문이며, 특히 사회과학의 성격이 강하다는 사실이 재확인 되었다.

둘째,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은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극소수의 타 학문 분야의 문헌을 집중적으로 인용(60.1%) 하였다. 인용률의 순위에 따라 그 학문 분야를 열거하면, 컴퓨터공학(21.8%), 경영학(16.7%), 교육학(11.5%), 사회학(10.1%)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발표한 새로운 연구 결과들은 컴퓨터공학, 경영학, 교육학 및 사회학의 성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정보학 연구에 주력하는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컴퓨터공학에 기반을 둔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교육 과정의 개편은 상기한 내용에 유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인용한 타 학문 분야 문헌의 반감기는 평균 10년이다. 그들이 인용한 타 학문 분야 문헌의 반감기가 5년인 것은 윤리학, 경제학, 법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무역학, 신문방송학, 기술과학 일반 등 8개 분야의 문헌이고, 10년인 것은 종교신학, 논리학, 언어학, 문학, 사회학, 통계학, 정치학, 경영학, 교육학, 지리학, 수학, 의학, 공업 등 13개 분야의 문헌이다. 그들이 인용한 생명과학 문헌의 반감기는 15년이고, 철학, 역사학 및 심리학 문헌의 반감기는 각각 20년이다.

5. 결 론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의 주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된 연구 주제가 출현하고 또한 쇠퇴한다는 것과 논문의 주제와 간행시기 간에

상관성이 존재함을 입증하였다.

(2)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논문 생산성은 학회지 출현 직전의 논문 생산성(14.8%)을 능가하는 데 30년 정도가 소요되었다.

(3)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의 주제 영역별 비율과 피인용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영역별 비율은 대체로 유사하며, 동시에 상호 관련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4) 피인용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주제는 인용시기에 따라 활발하게 인용되는 주제가 있는 반면 쇠퇴하는 주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5)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은 외국의 문헌정보학 문헌을 이용할 때 2편 중 1편 이상은 간행된 지 10년 미만의 최신 문헌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에 인용된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은 그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인용률이 점차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6) 피인용 타 학문 분야 문헌의 주제는 인용시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한 예로 기술과학 분야 문헌은 학회지 출현 이전에는 전혀 인용되지 않다가 학회지 출현이후 집중 인용되었다.

(7)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은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극히 일부 주제의 타 학문 분야의 문헌을 집중적으로 인용(60.1%) 하는 연구동향을 보였다. 특히 정보학 연구에 주력하는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컴퓨터공학에 기반을 둔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은 새로운 연구 결과 1편당 평균 4편(10,289편/2,571편) 이상의 타 학문 분야의 문헌을 인용하였다.

(9)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인용한 타 학문 분야 문헌의 반감기는 평균 10년이다. 또

한 인용된 문헌의 주제에 따라 그 반감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문헌정보학의 주제 영역 설정을 분석한

결과 정보학을 비롯한 10개 영역이 류 수준이었으며, 강 수준은 56개, 세목수준은 108개로 확인되었다.

참 고 문 헌

- 강순애. 1997. 한국의 서지학 연구동향 : 「서지학연구」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14: 1-21.
- 김용성. 1989. 『학문 분야 간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류청산. 2000. 『SPSS와 교육연구』. 서울: 형설출판사.
- 사공철, 박성민. 1994. 정보학분야의 계량서지학적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7: 125-160.
- 서은경. 1997. 정보학분야 연구동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와 JASIS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14(1): 269-291.
- 손정표. 2003. 한국의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동향 분석: 1957-200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3): 9-32.
- 오기평 등. 1993. 『학문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과학』. 서울: 학문사.
- 유재욱. 1993. 도서관학 학술지에 나타난 인용행태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10(2): 145-167.
- 이란주, 임지혜. 2002. 한국 서지학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3(1): 323-344.
- 이명희. 2002. 내용분석법에 의한 문헌정보학 학술지 연구논문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3): 287-309.
- 이삼열 등. 1993. 『학문 어떻게 할 것인가: 인문과학』. 서울: 학문사.
- 정동열. 1993. 연구방법론 분석에 의한 문헌정보학 이론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0(2): 23-41.
- 정동열, 김성진. 2003. 문헌정보연구의 이론 활용성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20(1): 165-198.
- 정진식. 2001. 한국 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5(3): 55-78.
- 조찬식. 1999. 문헌정보학 연구 및 연구방법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3(3): 45-61.
- 최희곤. 1999. 『한국 문헌정보학 분야 단행본 저작의 내용분석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한상완, 조인숙. 1996. 문헌정보학분야 학회지의 논문 분석. 『도서관』, 51(1): 114-139.
- 허만영. 2002. 『통계분석론』. 서울: 법문사.
- 허명희, 양경숙. 2001. 『SPSS 다변량 자료분석』. 서울: SPSS아카데미.
- Atkins, Stephen E. 1988. "Subject Tren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975-1984." *Library trends*, 36: 633-658.
- Choi, Jin Moo. 1986. *Bibliometric Analysis of Disciplinary Communication Patterns of Anthropology in U. S. A.* Ph.D. diss.,

- Rutgers University.
- Feehan, Patricia E. et al. 1987.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an Analysis of the 1984 Journal Literatur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9(2): 173-185.
- Ginn, Linda K. 2003. "Citation Analysis of Authored Articles in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001-2002." *Mississippi Libraries*, 67(4): 106-109.
- Harter, Stephen P. and Patricia A. Hooten. 1992. "Information Science and Scientists: JASIS, 1972-1990."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3(9): 583-593.
- Harter, Stephen P., Thomas E. Nisonger and Aiwei Weng. 1993. "Semantic Relationship between Cited and Citing Article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4(9): 543-552.
- Horri, Abbas. 2004. "Bibliometric Overview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Productivity in Iran."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1): 15-25.
- Järvelin, Kalervo and Vakkari, Pertti. 1990. "Content Analysis of Research Article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2(4): 395-421.
- Kajberg, Leif. 1996. "A Content Analysis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Serial Literature Published in Denmark, 1957-1986."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8: 25-52.
- Kumpulainen, Sisko. 1991.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in 1975: Content Analysis of the Journal Articles." *Libri*, 41(1): 59-76.
- Mabawonku, Iyabo. 2001. "Tren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in Africa, 1991-2000." *African Journal of Library, Archives and Information Science*, 11(2): 79-88.
- Nour, Martyvonne M. A. 1985.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Core Library Journal of 1980."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7(3): 261-273.
- Peritz, B. C. 1981. "The Methods of Library Science Research: Some Results from a Bibliometric Survey." *Library Research*, 2: 251-268.
- Price, D. J. de Solla. 1963. *Little Science Big Science*.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 Yontar, Aysel and Yalvac, Mesut. 2000. "Problem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in Turkey: a Content Analysis of Journal Articles 1952-1994." *IFLA Journal*, 26(1): 39-51.